

Redfin: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의 전체 현금 주택 판매



FEB 2023 —Redfin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0월 전체 현금 주택 판매가 8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.

10월 미국 주택 구매의 약 3분의 1(31.9%)이 현금으로 지불되었으며, 이는 2014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인 1년 전의 29.9%보다 증가한 것입니다.

2020년 4월 사상 최저치인 20.1%에 도달한 후 2021년 초부터 전체 현금을 사용한 주택 구입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.

“오늘날의 부유한 주택 구입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 대출과 그에 따른 높은 월 이자 지불을 모두 피하고 싶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불하려는 동기가 있습니다. 모기지 금리는 최근 몇 주 동안 하락했지만 여전히 6% 이상을 맴돌고 있습니다."대유행 주택 붐 동안 구매자는 낮은 요금으로 인해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인센티브를 받았고, 이는 경쟁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현금 제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협상 카드로 만들었습니다."

이 분석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9개 대도시 중 29개 대도시에서 전액 현금 주택 구매가 증가했습니다.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, 전체 주택 판매의 19.2%에서 38%로 증가했습니다. 그 뒤를 이어 클리블랜드(32%에서 47% 증가), 신시내티(43.9%, 29.6%에서 증가), 펜실베이니아 주 몽고메리 카운티(22.7%에서 31.2% 증가), 필라델피아(29.4%에서 37.1% 증가)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.

웨스트 코스트 메트로는 모든 현금 구매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소 목록을 지배합니다. 베이 지역에서는 가장 흔하지 않습니다.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는 주택 구매의 14.3%, 캘리포니아 오�클랜드에서는 16.5%만이 현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시애틀(19%), 로스앤젤레스(19.2%), 뉴저지주 뉴어크(20%)가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.